



한국GM,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 현장 점검

한국GM이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기차와 대형차 등 고난도 정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확대해 판매 이후 고객 경험까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 사업장 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4일 수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을 듣고 있다. /한국GM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노링 첫 일반 개방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아시아 최대 규모 타이어 테스트 트랙인 '한국테크노링'을 처음으로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한다. 한국타이어는 모터컬처 브랜드 '드라이브(DRIVE)'가 오는 12월 충남 태안 한국테크노링에서 세 번째 카밀 행사 '까쥬(GAS & JUICE by DRIVE)'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KT&G 릴, '2026 브랜드 대상' 9년 연속 수상

KT&G의 곁런형 전자담배 브랜드 '릴(III)'이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2026 올해의 브랜드 대상' 곁런형 전자담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매년 소비자 설문조사로 브랜드 충성도와 최선호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다. 사진은 이상인 KT&G NGP 국내사업센터장(오른쪽)이 수상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KT&G

대상 협력사 대금 400억 조기 지급

대상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 400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대상은 거래 중인 중소 협력사 243곳을 대상으로 당초 지급일보다 30일 앞당겨 결제대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추석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대금 지급을 완료해 명절을 앞둔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대상은 협력사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기술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ESG 컨설팅, 국내의 판로 확대, 임직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전력거래소 빛가람축제로 지역상생 동참

전력거래소가 9일부터 12일 까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12회 빛가람 페스티벌'에 참여해 전남광주 지역사회 활성화에 나선다.

빛가람 페스티벌은 혁신도시 조성 후 해마다 열리는 지역 대표 축제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행사로,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진, 4000km 달려 네팔 이재민에 희망 전했다

'긴급구호물자 이송' 수행기관 참여 비상보온담요 총 4만여점 지원

한진이 최근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물자 수송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한진은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주관하는 '네팔 대홍수 피해 긴급구호물자 이송 사업'의 물류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구호물자 운송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물품은 코이카 비축물자인 중보온담요 및 비상보온담요 총 4만여 점으로, 현지 이재민들의 체온 유지와 생존 지원에 필수적인 구호물자다.



한진 관계자들이 인천공항 글로벌물류센터(GDC)에서 네팔 대홍수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자를 출고하며 수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진

구호물자 수송은 한진 인천공항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에서 출고 및 보관, 항공 적재 준비 과정을 거쳐 시작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직항편을 통해 네팔 카트만두 공항까지 신속하게 운송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네팔 카트만두

공항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4000km로, 직항 항공편으로 약 7시간이 소요된다. 한진은 GDC의 고도화된 물류 인프라와 대한항공의 직항 인프라를 연계해 물품 확보부터 현지 도착까지의 수송 시일을 최소화했다.

한진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호물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에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한진의 글로벌 물류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적극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 라오스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

정몽구재단, 60명에게 장학금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라오스를 시작으로 해외 현지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4일 라오스 국립대학교에서 현지 교육 지원 사업의 첫 장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장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라오스 국립대학교 학부생으로 선발됐다. 이들에게

는 1인당 연간 등록금 200만킵(약 12만원)과 매월 학습장학금 200만킵(약 12만원)을 정규학기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진로 적성 검사와 전문가 멘토링 등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재단은 라오스의 고등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현지 교육 지원의 첫 대상 국가로 선정했다. 라오스의 중위연령은 약 25.3세인 반면 고등교육 총취학률은 2023년 기준 약 14.9%다.

이번 사업은 아세안 인재의 한국 유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4일 라오스 국립대학교에서 현지 교육 지원 사업의 첫 장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현대차정몽구재단

학을 지원해 온 기존 'CMK 글로벌 스칼라십'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지 청년들이 자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라오스의 젊은 세대가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를 넓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장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며 자신의 가능성을 구체적인 진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나갔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대한항공·델타항공, 도심에 벽화 선물

임직원 80명 벽화 그리기 봉사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남산초등학교에서 델타항공과 함께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대한항공 임직원 50명과 델타항공 임직원 30명 등 총 80명이 참여했다. 학교 주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 임직원들은 항공기와 서울 주요 랜드마크를 소재로 한 스케치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벽면에 직접 페인트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임직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남산초등학교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를 칠했다. 벽화 도안 제공과 행사 진행은 국내 NGO 단체인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이 지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18년 5월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JV)를 맺은 이후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기보, 신임 김남재 상임이사 선임

중기벤처 혁신성장 기여 기대

기술보증기금이 신임 김남재 상임이사(사진)를 선임했다.

7일 기보에 따르면 김 신임 이사는 1973년생으로, 문태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사, 경농·조비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이사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과 벤처캐피탈에서 경력을 쌓고, 다



인물이다.

김 이사는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기술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는 2028년 9월 6일까지 2년이다. /김승호 기자

수기업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는 등 회계·재무 및 투자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기업 경영 경험을 갖춘

준법경영 글로벌 표준

CJ대한통운이 기업의 준법경영 체계를 검증하는 글로벌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6년 연속 유지했다.

회사는 지난 2021년에 물류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301' 인증을 6년 연속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2016년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을 설치한 데 이어 2017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하는 등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해왔다.

법규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포털도 구축했다. 임직원 교

육도 직급과 업무 특성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신입사원과 승진자, 신임 리더,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하도급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업무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신 판례와 주요 규제 동향을 담은 사내 뉴스레터 '컴플라이언스 가제트'도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현장 준법관리 강화를 위해 각 조직의 준법 통제 현황과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는 '컴플라이언스 코디네이터' 제도도 운영한다.

CJ대한통운 장운석 법무실장은 "임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출(9월4일자) △외교부 미국 주재관 김민정 ◇전보(9월7일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솔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박희영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장 최지운 △식품안전정책국 식품부담행위 긴급대응단장 이계명 ◆한국예탁결제원 ◇전보(부장) △지역서비스부 부장 박인선 △홍보부 부장 여상현 △리스크관리부 부장 이정욱 △차세대사업실 실장 이형근 △차세대개발실 실장 손영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부서장 △인공지능정부기반본부장 이동철 △인공지능융합본부 인공지능혁신지원단장 어재경

◆법무부 ◇서기관승진 △법무부 의뢰과 최정필 △법무부 분류심사과 김은미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이성수

부음 ▲한기정씨 별세, 한창만(한국일보 인천본부장)씨 부친상=7일, 부산시민장례식장 50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장지 함천선영. 051-636-4444.

▲조해연씨 별세, 이상돈씨 배우자상, 조성은·조성지·조성아씨 부친상, 공진성(전 HS애드 전무)·서윤식(코트라 비상계 획실장)·최영(오스템임플란트 뉴욕법인장)씨 장인상, 공준호(매일경제 기자)·공지유(이데일리 기자)씨 외조부상=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11시 30분. 02-3410-3151